

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힘미제 '십만원문화제'

날짜 | 07 - 11 - 22 15:14

조회수 | 122

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힘미제 '십만원문화제'



본교 가을축제 힘미제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열렸다. 보통 과나 동아리별로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축제기간에, 누구나 팀을 만들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 소개하려 한다. 바로 ‘ 십만원문화제 ’ 이다.

이번 문화제는 세종대 재학생 뿐 아니라 모든 세종인,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함께 문화를 공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총학생회에 의해 기획되었다. ‘ 십만원문화제 ’ 라는 이름처럼 문화제 참가 팀에게는 10만원씩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며 축제 한 달 전부터 모집공고를 띄워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각 팀들은 특정한 형식이나 주제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전시회를 구성할 수 있다.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십만원문화제. 문화제거리로 조성되었던 광개토관 앞 잔디밭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문화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마침 지나가는 이들에게 노란색풍선을 나눠주며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던 교지편집위원회의 부스를 둘러보았다.

일부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눈에 잘 보이는 노란 풍선으로 부스를 꾸몄다는 교지편집위원회는 학교 언론 매체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론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본교발전을 위한 비판과 격려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문화제에 참여했다.

이를 위해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직접 만든 분홍색 보드판에 교지편집위원회가 하는 일, 언론의 진실 등의 제목으로 내용들을 써 전시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SIFE라는 연합동아리에서 나온 학생들이 공정무역(Fair Trade)의 실행과 중요성을 보드판으로 알리고 있었다.



공정무역은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하지만 공정무역 자체의 원칙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강대국들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수출제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SIFE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공정무역 10대 원칙’ 전시와 같이 쉽게 알리고 있었다.

또한 부스 한쪽에서는 에코노트 만들기, 커피 방향제 나눠주기, 커피비누 전시 등의 환경보호 및 재활용에 관련된 작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음료 추출 후 버려지는 커피알갱이로 비누와 방향제를 만들고, 남은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또 다른 노트를 만들다보면 어느새 자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다음 부스에서는 SIFE에서 온 학생들이 ‘멋진 바리스타’라는 이름으로 공정무역 커피를 팔고 있었다. 한국 YMCA Peace Coffee’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행사로 공정무역 피해사례 중 하나인 동티모르 커피를 팔며, 사진전시와 동시에 다른 해외공정무역 상품들도 소개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두 명의 학생이 “JUST FREE”라는 간판 아래에서 기타연주를 하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었다. ‘사랑의 몰래산타’라는 이 모금함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힘들게 지낼 불우이웃들을 돕고자 참여하였다고 한다.

각기 다양한 주제로 갖가지 볼거리를 제공한 이번 행사로 힘미제 기간 내내 광개토관 앞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세종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우리와 함께 축제를 즐겼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취재 및 글 | 이희주 홍보기자 (wlwjr8125@naver.com)

☐ 목록

▾ 다음글

